

양띠 안전인 새해 포부

2003년 계미년(癸未年)양띠 해를 맞아
 양띠 안전인들의 기대와 포부는 그 누구보다 남다르다.
 양띠 해에 태어난 안전인들에게 이번 한해를
 자신의 해로 만들기 위한 포부와 바람들을 들어보기로 한다.



“프로 안전인” 이 되기 위해 매진할 때

장 기 정 과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건설안전국)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고 벅찬 감동과 굳은 다짐 속에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계미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찬란한 새 아침에 먼저 안전인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새해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재해예방 및 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묵묵히 땀 흘리신 모든 안전인의 인내와 헌신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아~대한민국 !!

2002년은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국민화합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한해로 역동적인 국민의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임으로써 세계 속에 우뚝 선 한국을 다시금 새기게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부문에서는 규제완화 및 자율경쟁 체제라는 이유로 가뜩이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안전인이라면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며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 산업사회에서의 안전은 아직도 표면적인 안전에 집중되어 있고, 내실 있는 안전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산업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에서 제도와 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생활 전반에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제도를 실행하는 안전인이 현장에서 설 땅을 잃을 때,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전의 안전관리가 통제에 의한 안전관리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자율안전관리를 추구하는 추세로 앞으로 현장에서는 “프로 안전인”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저 현장의 잡다한 일이나 도맡고 안전교육이나

시키는 그런 관리적인 안전인의 모습이 아닌, 공사에서 품질, 환경 및 안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기술 안전인만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이란 계획·검토되고 준비돼야 하며, 이를 총괄책임하는 것이 안전관리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인의 위상은 스스로의 노력과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안전업무를 수행할 때 자연스럽게 정립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안전인들은 안전의 기본정신인 “인간존중” 사상을 모태로 하여 각자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창조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저 스스로도 올해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쉽게 적용가능하고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중별 시청각 교육교재 및 선진 안전진단기법을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접목시킨 한국형 안전진단기법 개발과 본사 안전팀에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개발·적용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다시 새해의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2003년 새해에는 안전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장 및 건설현장에 한 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안전인 여러분

올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안전은 안전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훈 안전관리자 (동서공업(주))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동서공업(주)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미국의 FEDERALMOGLI사와 국내 유성기업(주)와의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로 1984년 12월에 설립되어, 피스톤과 피

스톤 편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제품은 국내의 전 자동차 생산회사와 해외의 우수한 자동차 메이커 조립용으로 공급되어, 고객으로부터 품질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및 품질보증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1995년 “ISO 9001”과 “QS 9000” 인증을 받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과 경영혁신시스템(BRP)을 도입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2001년 7월에 독일 TUV사로 부터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여 “환경 친화적 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1C의 경쟁력 있는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미년의 바람

안전관리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후회를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근로자와 관리자의 안전의식이 너무 결여되어 있다고 느낄 때 힘들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풍토가 자율안전을 하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후진국형 안전관리를 해야한다는 현실에 안전의 길을 잘못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음 안전관리를 도입했을 때부터 선진국형 안전관리 모델을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안전관리자 제도를 만들고, 교육하고, 홍보하였으나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한 분석도 없이 모방만 하다보니, 현재 우리 산업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기법은 거의가 똑같이 받아들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저의 해인 계미년에는 안전관리자로서 홍보대사가 아니라 한 사업장의 안전관리 기법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가장 적합한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Staff가 되고자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안전은 안전인들만이 하는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사고이며, 안전은 작업에 불편하고 방해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 안전인이 해야 할 일이고, 제가 계미년에 택한 계획입니다.

새해포부 및 계획

2003년 양의 해에는 한 건의 경미한 사고도 없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외적으로 우선 우리 회사의 무재해를 위해 안전표어 공모, 포스터나 현수막 설치, 안전신문 발행 등 다각적인 안전 의식 정착의 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형식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좀더 현실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그리고 근로자의 안전과 우리나라 안전수준을 한 단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나부터 최선을 다하는 해를 만들 것입니다.

끝으로, 안전인 여러분께!

계미년 새해를 밝게 비추는 태양이 항상 여러분의 산업현장에 밝게 비추어 무재해의 꿈을 이루길 기원드립니다.



예비안전인의 자세

한 상 현 학생 (대덕대학 시스템안전설계학과)

안녕하십니까? 예비 안전인으로서 여러 선배님들을 “안전기술” 지면을 통해 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양띠해는 제게 있어 두번째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양띠해의 의미를 알고 맞이하는 것은 2003년도가 처음이니, 처음 맞이하는 양띠 새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2003년도는 학창시절의 마지막 1년이라는 중요한 시기로 제게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난 한해는 대덕대학 시스템안전설계학과에 입학한 해로 저의 앞날을 선택한 해라면, 새해는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학업에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시스템안전설계학과 1학년 대표로써의 활동은 자신감을 갖게 한 지난날이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신입생으로 처음 입학한 저로서는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 처음에는 힘이 들었고,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타의에 의해 과대표가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도 교수님께서 저에게 “학교도 늦게 들어와서 스무살 학생들하고 똑같이 공부만 배우다 졸업할래? 무슨 이유였던 간에 어쨌든 네가 맡게 된 자리이니 다른 학생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며 질책하셨고, 그 말씀은 저에게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후 학교 생활에 변화를 갖기 시작하였으며 그 누구보다 학우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는 과대표, 만형

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밑거름 되어 결국 학기 말에 실시한 학회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로 학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계미년인 2003년도는 제게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걱정과, 더불어 기대감이 가슴을 쓸어 내리곤 합니다.

학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하여 이 과를 선택하였기에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기사 자격증 준비는 물론 자기 개발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완화 등 안전인의 자리가 아직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에서 내년에 ‘제2의 MF’ 라는 전망 속에 우리 예비 안전인들은 두려움이 앞서서 한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실히 최선을 다해온 학교생활을 기를 삼아 계미년 새해도 후회되지 않는 양띠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안전인에게 밝은 비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계미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